

칼빈주의 바로 알기 13
칼빈주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로마서 9-11장 바르게 이해하기

롬10:1-4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칼빈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교회사 공부, 국가 교회, 자유 교회, 칼빈주의는 어거스틴주의 이들은 국가 교회, 전체주의 독재로 도시와 국가를 다스림, 영혼의 자유 부인, 강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민들 복종하게 함, 교회론, 인간론, 하나님론의 오류 칼빈의 이런 사상들을 추종하는 신학, 개혁신학, 언약 신학 스프로울 등 50여 명의 학자들이 만든 종교개혁 개혁신학 새 제네바 성경의 여러 가지 오류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무조건적인 선택, 2중 예정

이것들을 지지하기 위해 칼빈주의자들은 늘 로마서 9장을 사용한다. 애용한다.

성경의 어떤 구절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보고 거기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

로마서는 16장: 1-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였다.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의 상태, 모두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다른 구원방법 없다. 그 뒤 성화, 영화 우리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 인간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려진 상태인가를 살펴봤다. 4장과 5장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살펴봤다.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다.

사람의 상태(1-3), 구원/칭의(4-5), 성화(6-8), 영화(8)

구원의 전 과정을 풀어 쓰면 8장 29-3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한 예정, 부르심, 의롭다 인정하심, 영화롭게 하심, 마지막으로 31-39절,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12-16장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준다. 특별히 성도의 성화, 날과 달과 음식 문제 등

오늘 살펴보는 9-11장은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말씀들, 9-11장이 없이 8장 다음에 곧바로 12장이 나와도 아무 문제없다. 어찌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9-11을 삽입할 수밖에 없었다. 왜? 유대인들 문제, 유대인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 간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약속, 어떻게 되는가?

롬9-11의 주제:

육적 이스라엘(아브라함의 씨)은 어떻게 되는가?(롬9:3-4; 10:1, 21; 11:1-2, 26, 28) 카톨릭 교회와 장로교회 등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어거스틴/칼빈주의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니 9-11장이 이상한 해석 롬9:1-3은 바울의 큰 슬픔을 보여 주고 롬11:33-36은 하나님께 대한 큰 찬양을 보여 준다.

롬9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롬10은 이스라엘의 현재를, 롬11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 준다. 유대인은 누구인가?

1.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신7:6-9; 롬11:28).
2. 하나님은 그들이 메시아의 통치 하에서 영화로운 왕국을 누릴 것을 약속하였다(단7:13-14; 사2:1-5; 9:6-7; 11:1-9; 렘31:31-37; 33:14-16; 눅1:31-33).
3.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을 배척하였다(요1:11; 마23:37-39).
4.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멤버는 모두 유대인이었다(행2).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행10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유대인은 줄어들고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다. 지금 현재(2021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무신론자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생각해 볼 문제점

1.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은 어찌 되었는가?
2.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었는가?
3.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로 이방인들과 연계되어 있는가?
4.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이 났는가? 그러면 1948년 5월은 무엇인가?
5. 이스라엘(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직 남아 있는가?

당신이 1세기의 유대인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들을 생각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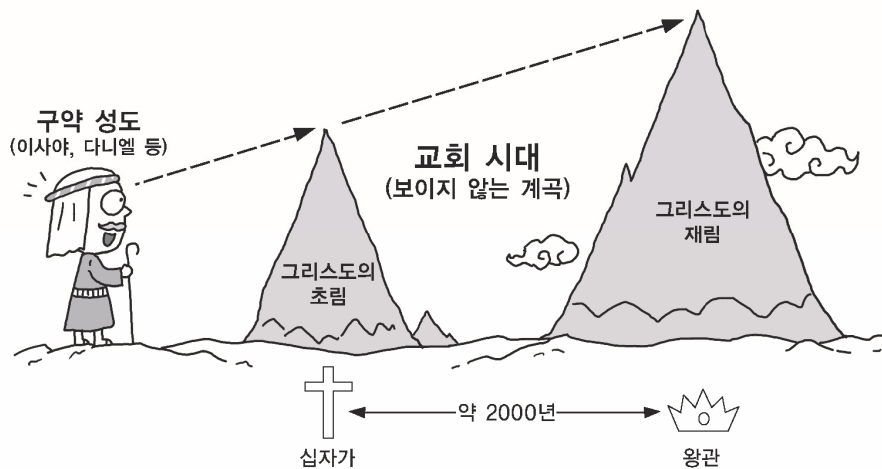
1. 바울의 복음은 참인가? 거짓인가? 즉 그가 전한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아닌가?
 - a. 거짓이다: 이 경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며 아직 왕국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b. 참이다: 이 경우 왜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구약의 약속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후자가 맞는다.
2. 롬9-11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준다.

만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포기하셨는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에게 하신 약속도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답을 주고 있다.

카톨릭/장로교회는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함

어떤 이들은 교회가 곧 왕국이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스린다고 주장한다(영해). 무천년주의 이런 주장들로써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할 수 없다. 롬9-11이 해답을 준다.

1. 현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롬10:9-13; 11:1-5).
2. 미래의 유대인들(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롬11:25-28). 이스라엘이 현재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아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롬11:28).
3. 현재의 교회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다.



- a. 사9:6-7, 6절은 초림, 7절은 재림, 교회 시대가 언급되지 않음
- b. 사61:1-2(눅4:18-19 비교), 초림과 재림, 예수님은 초림 부분만 읽으심
- c. 미5:2,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스리는 자여야 함. 전반부만 성취됨

- d. 속9:9-10, 초림과 재림
- e. 눅1:31-33, 초림과 재림
- 4. 구약 시대의 유대인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였다.
- 5. 우리는 지금 교회의 계곡에 살고 있다(마16:18; 행15:14).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산봉우리를 잘 볼 수 있다.

로마서 9-11장의 문맥

- 9장 시작(1-4), 자기의 육적 형제들인 이스라엘로 인한 고통
- 30절 이후, 역시 이스라엘
- 10장 1절: 이스라엘
- 19-21절 이스라엘
- 11장 1절: 이스라엘
- 11장 25-31절
- 9-11장 전체가 이스라엘 이야기, 개인의 구원 주제가 아니다.

제임스 나스의 설명: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와 믿음을 통해 개인들을 구원하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약속을 모두 폐기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깨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실행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세 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실 때, 또 앞으로 다루게 되실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각각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문맥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장에서 구절들을 읽고 해석할 때 이러한 문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즉 9-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지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개개인의 구원 문제는 1-8장에 나와 있다.

(*) 소제목 설명

가장 중요한 것: 11장 28절을 기억하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복음과 선택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고도 복음의 원수(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 중에서 선택 받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즉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1장의 문맥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받았으면서도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 약속의 땅과 상속 재산과 축복을 받기로 선택 받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일정 기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문맥을 잘 살펴본다면, 칼빈주의자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공격할 때 당신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11장 28절이 가장 확실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택은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사이에 맺은 국가적/민족적인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9-11장 요약

바울은 9장에서 메시아를 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권리에 대해 기록한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일 때문에 여러 모로 큰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 해도(즉 선민이라 해도) 모든 유대인들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과 여러 가지 다른 언약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권리를 유지해 오셨고 사용해 오셨다(파라오, 느부갓네살 등).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식(그것은 믿음으로만 된다)으로 여러 개인들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특권을 보여 주셨다(노아, 욥 등 구원).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들의 의를 구하려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선택된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자 그들의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공회를 베푸신다는 약속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며 조상의 덕에 힘입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다. 롬10:10-11, 13

9-11장의 주제는 절대로 개인의 예정과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다.

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내신 뒤 대다수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배척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장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한다(무조건 선택을 말한다).

11장 불신을 통한 이스라엘의 넘어짐, 믿음을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때 즉 7년 환난기 후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 통치 계획이다.

http://www.insearchoftruth.org/articles/romans_9.html

결론

롬9-11장은 불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한다.

왜 바울은 롬9-11장에서 불신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가?

불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그러므로 불신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개개인의 구원 문제로 이해하면 안 된다.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 이야기

바울이 9-11장에서 말하는 것들은 불신 유대인들의 특징:

미움을 받음. 공회를 얻지 못함. 강박하게 됨. 진노의 그릇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구원받지 못함, 행위로 구원을 추구함, 믿지 않음, 걸려 넘어짐, 지식이 없이 열심을 냄, 불순종함, 완고함, 자기들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 눈이 멀고 범법을 행하며 일시적으로 꺾여 있음, 복음의 원수, 그러나 최종적으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코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들의 해석 체계를 본문에 강요하는 것이다.

칼빈과 어저스틴, 맥아더, 파이퍼, 스프로울 등이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단 1초도 칼빈주의 해석에 드리면 안 된다.